

올해 첫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베이징에서 열려

- 1.19(월) ~ 1.23(금), 베이징 -
-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 협상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협상이 1.19(월)~23(금)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15년 발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1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1.5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을 통해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협상을 격월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상 속도를 내고,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투자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810)
		담당자	사무관	김애선 (044-203-5814)